

제267회 임시회 의결사항

해운대구의회는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 소관위원회 | 안 건 명 | 심사결과 |
|-----------|---|------|
| 의회운영위원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02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 |
| 기획관광행정위원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 주민도시보건위원회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해운대 문화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
| | 공공토지비축사업 및 예산 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력 생산이 우선이 아니고 투기성 해외 자본에 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다. 공익성이 변질된 채 대다수 구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

는 해양생태계 교란, 해양 이용 제한, 소음, 진동, 전자파 발생 등을 지적하고 생태적 공간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은 백지화돼야 하며, 부산시는 본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행정사무감사 구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내용

- 구정 전반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 및 사업의 개선 및 건의사항
- 기타 구민 불편사항 등

■ 제보기간 : 10월, 11월

■ 제보방법

-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열린마당)

■ 문의 ☎051.749.4982~3, 4986

5분 자유발언

절차 무시한 무리한 인사행정



최은영 의원
(중·좌2·송정동)



원문 보기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텐데 조례 개정안과 별정직 공무원 인건비를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다.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몇 개월만 기다리면 될 것을 별정직 직원을 두는 것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과 공평을 유지하려면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선다.

신청사 배의 선장은 구민



박기훈 의원
(재송1동)



원문 보기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 촉구와 기금적립 과정에 주민과 협의 및 의회와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올 초부터 언론매체나 주민센터 등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사는 2024년 목표로 운항중이라고 구민과 의원들도 도와달라 했다. 그러나 빨라도 2026년도 상반기에 건립된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해달라.

구정질문

지지부진 센텀2지구산단 조성사업



김성군 의원
(반송1·2동)



원문 보기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세요

반여·반송·석대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 구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 현황(교통불편 해소대책, 재활용 선별장 이전위치 재검토)을 비롯해 2022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조치에 따른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 등 해운대구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